



## 日원전 오염수 방류 '초읽기'...전남 수산업 '초비상'

신안 천일염 가격 폭등...일부 사재기·비축 움직임 뚜렷  
전복·김 등 소비 위축 현실화될 양식업 '줄도산' 우려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지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먹거리 안전을 걱정하는 소비자 심리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전복·김 등 가격 폭락으로 인한 지역 내 양식업 '줄도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신안 천일염 가격은 이미 폭등한 상황에서 사재기·비축 움직임도 뚜렷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신안군과 천일염 생산업체 등에 따르면 천일염 20kg 한 포대가 2만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본격 생산이 시작된 지난 4월 초 1만3천~1만4천 원 수준이었던 천일염 가격은 최근 급등했다. 여기에 도착 운반비, 상하차 비용까지 포함하면 20kg 한 포대에 2만5천 원 수준이라는 게 지역 어촌계의 설명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르면 7월 초로 예상되는 만큼 천일염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안지역의 경우 최근 원전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급감했다. 일부 원전과 농협에서 천일염 등을 사재기하거나 비축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역 어촌계의 한 관계자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발생 당시에도 천일염 20kg 한 포대에 3만5천 원까지 오른 적이 있어 그때 보다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비축 물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실제 생산량 감소로 공급량도 줄고 소금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돼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수산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보관 기간 등 원전 오염수 방류에



값 오르는 천일염 천일염 본격 생산 시기인 7월과 8월 장기간 비가 온다는 예보와 생산량 감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겹치면서 신안 천일염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소금 판매상점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김예리 기자

따른 불안 심리로 인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지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 완도산 전복 가격은 지난해 1kg당 4만2천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 2만7천 원 수준까지 35% 가량 하락했다. 완도지역 양식어가 관계자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산물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어가와 유통업체 모두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당장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양식어가는 업종 전환까지 고민하는 실정이다. 진도지역의 한 전복 양식업자는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 감소 등으로 줄도산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오염수 방류 즉시 수산물 소비는 급감할 수밖에 없어 민물 양식으로 전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전남지역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조사 품목 확대, 원산지표

시 강화 등 불안감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에 방류 대응 특별법과 수산물 사전 수매 확대, 원산지표시 강화, 소비 위축 손실 보상 계획 수립, 해양 분석자료 방송 자막 제공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2면에 계속 /완도=윤보현·신안=양홍기

##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화 나서야"

전남여성단체협, 광주시에 특단의 지원대책 촉구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는 13일 "무안군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무안 중앙공원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남도의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캠페인과 도민 강연회를 통해 군공항 이전 정보가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면서 반대 일색이던 지역 내 여론에 기류 변화가 생기고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또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의 부정적 효과만 내세워 주민의 귀를 닫는 행동을 중단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는 "광주시는 '광주군공항 특별법 제정 환영' 플래카드를 내걸어 광주 시민에게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일 마냥 홍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전남도민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원대책 우선제시를 요구했다. 최두레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 관련 기관의 대화를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남도와 무안군이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 반도체 특성화대학 품었다...특화단지 기대감 ↑

전남대 전북대 연합, 공모 선정...4년 340억 지원 420명 인제 양성

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주관) 연합 대학이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관련기사 12면 광주시-전남대학교는 13일 "특성화대학 공모사업 선정으로 최대 340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차세대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사업 선정, 5월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 성과에 이은 쾌거다. 특히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호남 경제 발

전을 위해 첨단과학기술 고도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8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반도체국가전략회의에서도 인공지능과 반도체산업의 접목까지 직접 언급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은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시설·장치 구축, 기업 협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사업으로,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 5개교와 2-3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 3개 연합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대학교는 전북대학교와 연합으로 동반성장형(비수도권) 분야에 참여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광융합, 인공지능에 기반한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용 반도체' 특성화 분야에 대해 4년간 총 42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선정은 호남권 특화사업인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필수적인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사·도민의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전남도는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북구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육성 계획을 지난 2월 말 산업부에 제출했고 오는 7월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박선강 기자

### Today

- '홍어' 유네스코 등재나선다 9면
- 1인당신용카드 4.4장 '역대최다' 13면
-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신안 14면

2023 광주매일신문 연중 공익 캠페인

봉사·나눔·배려로 만드는 지역공동체

#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광주·전남은 예부터 정(情)이 넘치는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낙후된 경제 여건과 인구절벽 문제가 지역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정신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흩어졌던 이웃 간의 정을 다시 나눠 국난을 극복할 때입니다. 이에 광주매일신문은 2023년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하고 소개해 온정이 살아 숨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행 기관·기업·단체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광주광역시·전라남도·사랑의열매·광주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사)광주광역시사회복지심부서지원센터**  
**(사)광주광역시공무도리봉사회·자평(子平)·한수원시니어직능클럽·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광주남부지소 여성가족위원회·남양건설·남양문화재단**